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한 용 수 역
돌직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이 일부 충족해서다. 내주쯤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의 변수가 됐던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순간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중증도는 낮아지며 감염 후 치료와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되는 풍토병 정도로 변모할 수 있을까. 다만, 바이러스 특성상 새로운 변

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개량백신 개발 등 여전히 긴장의 고삐는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스크를 곧 벗게 되는 마당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으나,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인권침해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내외 공간을 들락거릴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은 일일뿐더러,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런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지금까지도 야외에서 상당기간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왔다는 걸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오히려 마스크를 이제 곧 벗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동의 연대를 이어갔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재벌집 막내아들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우린 마스크를 함께 쓰며 전염병에 저항하고 버텼었다. 부자라고 마스크 두세개를 쓰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하루 한 개의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마스크에 있어선 누구나 평등했고 색깔을 나누지도 편을 가르지도 않았다.

이제 마스크를 벗더라도 마스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잊지 않길 소망한다. 올해 최악의 무역적자에 이어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의 주요 기관 모두 1%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기보단 마스크로 하나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경제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세종=hys@metroseoul.co.kr

금융혼란과 은행권의 자세



기지 수첩
구 남 영
(금융부)

“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이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이를 망각한 채 금융혼란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뚫었다.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은 줄어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9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에 형성됐다.

연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그러나 최근 주중 은행은 높은 대출이자율에 비해 성과급과 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확대해 이자 수익을 끌어올린 탓이다.

5개 금융지주의 2022년 이자수익은 80조9770억원으로 2021년(59조3860억원)에 비해 21조5910억원(36.3%)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의 위험을 감내하고 성장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집착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두 곳은 지난해 1분기에만 대출금 전체의 98%를 예금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1분기 평균 대출이자로 3.28%를 받고 예금이자로는 1.04%만 지급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 대부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은행권의 수익 구조는 국내와 다르다.

미국의 B대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이자수익이 128억9400만달러지만, 이를 제외한 수익도 122억2300만달러에 달한다. 대형 해외 은행들은 당장의 리스크를 감내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권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은행에 대해 공법상의 규제 권한을 발휘해 다소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금융부실이 사회 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koogija_tea@

오늘의 운세 1월 10일 (음 1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48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0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2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84년생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37년생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49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61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7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85년생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38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자. 50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62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74년생 이기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라. 86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39년생 동분서주 바쁘지만 하고 실속은 없다. 51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6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87년생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40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52년생 연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6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76년생 추악으로 기분을 달랠다. 88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



41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중요. 53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65년생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77년생 자기검소는 커다란 덕목. 89년생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연못에 빠지려는가.



42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면 된다. 54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66년생 외출할 때 이문자를 조심. 7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90년생 충동적인 사치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43년생 목마를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55년생 누구든 인연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사. 67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79년생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9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44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56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 68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80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2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급계획부터.



45년생 간절한 기도는 가뭄을 불러온다. 57년생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6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81년생 독단에 빠지면 위기가 오니 겸손하게 소통을. 9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6년생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58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70년생 감사한 마음은 항상 기회를 제공한다. 82년생 빨간색 우체통을 보니 공연히 반갑다. 94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47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59년생 주식투자는 시간 낭비. 71년생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3년생 시골로 이사 가려면 먼저 한달 살아보기를 해보자. 95년생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계획.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③



을목(乙木)은 부드러운 나 소(丑)와 양(未)을 찌르며 가를 수 있고 병(丙)과 정(丁)을 품으면 봉황(酉)과 원숭이(申)를 탈수 있다. 지지(地支)가 습하고 허하면 말(午)을 타고 역시 근심을 면하기 어렵고 등라계갑(藤蘿繫甲)이 되면 붉고 좋고 가을도 좋다. 병화(丙火)는 맹렬하니 서리와 눈을 업신여기며 능히 경금(庚金)을 제련한다. 그러나 신금(辛金)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내고 토(土)가 많으면 자비를 드러내고 수(水)가 창궐해도 절개를 지킨다. 호랑이(寅)와 말(午)과 개(戌)의 마을에 갑목(甲木)이 오면 반드시 타서 없어진다.

정화(丁火)는 부드럽으면서도 밝게 빛난다. 을목(乙木)을 안으면 효도하고 임(壬)과 합(合)하면 충성한다. 비록 왕성해도 맹렬하지 않고 쇠약해도 궁하지 않으니 친어머니(甲)가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무토(戊土)는 굳고 두터우며 그 자체로 이미 중앙에 거하면서 기품이 있다. 고요하면 모이고 움직이면 열려 만물을 다스린다. 물로 적셔 두면 만물이 생하고 흙이 메마르면 만물이 병든다. 만약 간곤(艮坤;寅申)충이 있으면 충(沖)이 두려우니 고요해야 한다. 기토(己土)는 낮고 습하며 중정(中正)을 포함한다.

목(木)이 왕성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물이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은 화(火)는 기토를 만나면 빛을 잃으나 많은 금은 기토를 만나면 빛이 난다. 만약 만물이 왕성해지려면 화토(火土)의 방조(幫助)를 얻어야 한다. 경금(庚金)은 살기를 띠며 가장 강건하다. 물을 얻으면 깨끗해지고 火를 얻으면 예리해지고 토의 윤택함을 얻으면 생(生)하고 토가 건조해지면 물러진다. 형인 갑(甲)에게는 이기지만 아우인 을(乙)에게는 진다. 독자분들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읽다보면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우라이 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5		1	6
			1				4
	8			2			3
2					3		6
4		6	8				
8			1				
9	1				2		
	6	4	9	8			

3							
		1		4	7		5
	2						1
	3				8	5	2
	9			5			3
				8			9
							3
	1	3			4	8	
				6		1	7

정답

9	2	1	2	8	6	7	9	8
2	8	9	2	8	7	9	1	6
6	7	8	9	9	1	2	2	8
2	6	9	1	2	8	9	8	7
1	9	8	8	7	9	2	6	2
8	2	7	6	2	9	1	8	9
8	8	2	7	9	2	6	9	1
7	9	6	8	1	2	8	2	9
9	1	2	9	6	8	8	7	2

7	2	1	2	9	8	6	9	8
9	2	8	7	2	6	8	1	9
8	6	9	9	8	1	2	2	8
8	8	2	1	9	9	7	6	2
2	9	8	8	6	7	2	8	1
1	7	6	8	2	2	8	9	9
6	1	7	9	8	8	9	2	2
9	9	8	2	7	2	1	8	6
2	8	2	6	1	9	9	7	8

과히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